

무수혈 간이식 국내 첫 성공

간이식 전과정을 수혈 없이 진행하는 무수혈 간이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 Rh마이너스형 등 희귀 혈액 보유자처럼 수혈이 불가능한 환자의 대수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삼성서울병원 장기이식센터 이석구교수팀은 지난 13일 선천성 담도폐쇄증을 앓고 있는 한 살짜리 김모양에게 수술 중 흘리는 피를 걸러 다시 넣어주는 자가수혈 방식만으로 간이식 수술을 하는 데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양은 현재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태다. 장기이식 수술은 평균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수술 중 수혈이 필수적이어서 희귀 혈액 보유자나 수혈거부 및 감염우려 등으로 수혈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이식수술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B형간염 임신부 출산 때 신생아에 무료 예방접종

국립보건원은 내년부터 B형 간염에 걸린 임신부가 낳은 신생아에게 무료로 B형 간염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보건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B형 간염 예방법은 아기 때 예방백신을 맞는 것”이라며 “신생아 때 예방주사를 맞으면 90~95퍼센트는 면역력이 생겨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산모가 간염 보균자이거나 환자일 경우 출산한 뒤 12시간 안에 신생아에게 예방백신과 면역글로불린을 함께 접종해야 효과가 있다. 산모가 정상일 경우에는 생후 2개월 안에 첫 백신을 맞으면 된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주로 혈액이나 정액 등을 통해 감염되며 특히 산모가 B형 간염 보균자일 경우 출산할 때 아기에게 옮겨지는 ‘모자간 수직감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이식 전과정을 수혈없이 진행하는 무수혈 간이식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

제일제당-서울약대, 간경변치료제 개발 제휴

팬제노믹스와 임상 및 기술수출 추진 예정

제일제당(대표 손경식)은 최근 서울대 약대 김상건 교수 및 (주)팬제노믹스(대표 강창울)와 간경변 치료제(물질명 PT-1)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제휴를 통해 동물실험 결과 간경변 치료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된 신약후보 물질(PT-1)에 대한 체형연구와 단계별 임상, 해외 기술수출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다져나갈 예정이다

PT-1은 서울대 약대 김상건 교수가 1999년부터 (주)프로세라퓨틱스의 지원으로 간섬유화억제 후보물질 검색체계를 확립하고 후보 약물을 찾던 중 개발한 것으로, 간섬유화와 간경변 동물 및 세포모델에서 뛰어난 예방과 치료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번에 개발된 간경변 치료제 신약후보 물질은 원래 기생충약으로 개발되었으나, 김상건 교수에 의해 간경변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 사실을 발견, 현재 4건의 국내외 특허출원과 10편의 관련 논문도 발표된 상태다. 제일제당측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만 약 920억원 규모의 간보호제 관련 의약품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간세포의 활성을 도와주는 ‘치료보조제’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간경변증에 대한 전문치료제는 개발이 안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국내외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B형 간염보균자와 C형 간염보균자가 모두 간경변증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후보물질 개발이 세계 최초의 간경변치료제로 성공할 경우 연간 약 3조원 이상의 대형신약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제일제당은 현재 물질합성연구를 진행중이며 2002년 하반기중 임상시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제일제당 전길환 부사장은 “임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05년 국내에서 신약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외국 임상 동시 추진을 위해 현재 다국적 제약사들과 임상시험 공동추진 및 기술수출 계약에 대한 협상도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팬제노믹스는 지난해 4월 서울대 생명공학부와 약학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회사로, 게놈 연구를 통한 신약과 신물질의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벤처회사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약학과 강창울 교수가 대표이사로 있으며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미국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참여해 인간의 22번째 염색체 해독에 크게 기여한 김웅진 박사가 미국 지사장으로서 있다

제일제당은 팬제노믹스와 임상 및 기술수출 추진예정

경남지역 농민 70퍼센트 각종질환 유소견자

농민 1,133명 건강검진 분석결과 주요장기 정밀진단 필요

경남지역 농민의 70퍼센트 가량이 간경변이나 초기암 등 각종 질환 유소견자로 나타

보건복지부는 금연운동, 회귀, 난치성질환자의 의료지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확대 등 다양한 혜택부여

났다. 경남농협지역본부는 4일 지난해 6~12월까지 농민 1,133명을 종합건강검진한 결과 대상자의 약 70퍼센트가 각종 질병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남농협에 따르면 초음파검사 결과 남자 440명 가운데 265명(60.2퍼센트)과 여자 693명 중 316명(45.6퍼센트)이 간질환 유소견자로 드러났고, 심장 및 뇌혈관검사에서 남자 141명(32퍼센트), 여자 186명(26.9퍼센트)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상부소화기 촬영에서도 16.5~48.5퍼센트, 요화학검사에서 10~21.7퍼센트, 혈액질환에서 12.5~20 퍼센트의 유소견율을 보여 농민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농협은 간과 심장, 위 등 주요장기에 대한 유소견율이 높은 것은 농촌 연령이 높고, 과도한 육체노동에 비해 식사가 불규칙하고 과식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2002년 보건복지 이렇게 달라진다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비흡연자를 간접 흡연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금연운동이 전개된다. 정부중앙청사,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은 원칙적으로 건물내 흡연이 금지되는 절대금연건물제도가 실시되고, PC방, 만화방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실외경기장·식당 등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회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고셔병, 혈우병 등 4종의 회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나, 새해부터는 베체트병, 크론병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암검진 기회가 확대된다.

작년까지는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무료검진을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하위 20퍼센트에 해당하는 99만명의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해서도 무료 검진을 실시하여 암 예방을 증대 및 조기발견을 통한 국가암검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의료비가 지원된다.

소아백혈병환자에 대한 암치료율을 높이고 가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자의 자녀 중 15세 이하 소아백혈병 환자 500명에게 연간 500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지급된다.

정신장애인이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65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하여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촉진한다

정신보건시설의 개방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체육·문화행사 등을 강화한다.

노인과 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한다.

70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4,760명을 대상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 초등학교 1학년 270천명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지원하여 충치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및 아동의 구강보건의 향상을 꾀한다

전염병감시체계가 강화된다.

콜레라, 이질 등 1,2,4군 전염병(28종) 환자발생에 대해 진단 즉시 신고토록 하고, 조기진단이 중요한 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에 대해서는 표본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전염병 발생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각급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전염병 담당요원의 전문교육 및 대국민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한다

61세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 노인(456천 명)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원일수' 경감 및 '사망률 감소'를 유도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증진할 계획이다

美 ISR, 북한 간염환자 치료 5개년 사업 착수

3단계 보건사업 완료 매년 550만달러 약품 지원

미국 민간정책연구소인 국제전략화해연구소(ISR)는 내년부터 북한 간염환자 치료를 위한 5개년 장기보건사업에 착수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ISR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B형 간염환자 치료를 위한 3단계 보건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매년마다 550만 달러 상당의 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ISR의 북한 간염환자 치료사업은 먼저 1단계로 북한의 15~20개 주요도시에 네 차례에 걸쳐 인터페론 등 간염치료약품과 검진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앞으로 3년간 주요도시의 간염환자 요양소를 중심으로 치료사업을 확대하며 3단계로 간염치료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주내용으로 한다

한편 ISR은 현재 미 재무부 승인아래 합법적인 대북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SR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B형 간염환자 치료를 위한 3단계 보건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매년마다 550만 달러 상당의 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다